

논문투고일 : 2009. 3.19

심사완료일 : 2009. 6. 9

# 제주도 말고기 식용 전통과 말고기 식용 부정(不淨) 관념 분석

민 윤 숙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박사과정  
Min Yoonsuk | Andong National Univ, Department of folklore

1. 머리말
2. 제주도 말고기 식용의 전통
3. 말고기 식용과 말고기 식용 부정(不淨) 관념 분석
4. 맺음말

к с і

# 제주도 말고기 식용 전통과 말고기 식용 부정(不淨) 관념 분석

민 윤 숙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박사과정

## 1. 머리말

요즘 제주에선 말고기 식당이 번성하고 있다. 승마목장을 하며 말고기 식당을 겸업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사회의 문제로 불거진 광우병과 관련하여 말고기는 쇠고기를 대체할 안전한 육류로 각광받고 있으며, 어느새 제주도의 향토음식, 혹은 제주도가 개발할 전통음식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불과 7, 8여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sup>1)</sup> 물론 제주도에서 말고기를 먹은 것은 상당히 오래전으로 보인다. 다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고기사브사브나 말고기육회는 실제 제주의 말고기 식용 전통과는 다른 것이다.<sup>2)</sup>

그런데 제주도 내에서도 말고기 식용은 ‘부정하다’는 관념<sup>3)</sup>과 더불어 형성되어온 특이한 면이 있다. 말고기는 제사나 상례, 명절, 당굿 등의 의례음식으로 상 위에 오르지 않으며, 의례를 앞두고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부정하다, 부정단다’는 생각 때문에 금기시되어 왔다. 따라서 말고기를 추렴할 경우 명절이나 제삿날을 피해 모두 먹어야 하므로, ‘빨리빨리 먹어 치워야 하는’ 음식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쇠고기의 경우 장항 속에 묻어 두고 오랫동안 저장해 먹거나, 손님이 오면 국을 끓여 대접하는 등 아껴서 먹던<sup>4)</sup> 것과는 대조적이다.

1) 제주향토음식에 관한 일련의 연구, 양인선, 황춘선(1990, 『제주도 향토음식에 관한 대학생의 인지도 및 기호도 조사연구』, 정경숙(1999, 『제주도 자연관광자원의 관광지리적 이해』), 김희배(1998, 『제주도 특산물 진흥 방안』), 오혁수(1999, 『제주향토음식 메뉴특성에 관한 연구』), 오영주·오혁수(1999,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지정에 따른 99 제주음식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는 제주향토음식으로 말고기가 거론되지 않았다. 말고기가 언급된 것은 다음과 같다. 진성기(1986, 남국의 향토음식)는 말술음, 말피국, 말볶음 등을, 김지순(1998, 『제주도음식』, 대원사)은 말고기육회를 소개하였다. 조문수(2001, 『제주 전통음식과 지역주민의 외식 행동에 관한 연구』)는 26개의 제주전통음식에 말고기요리를 포함시켰다. 허남준·주영하·오영주(2007)의 『제주의 음식문화』에선 몽고지 베이후 말뚝장이 생기면서 말을 식용으로 한 특징이 있으나 말 진상에 어려움을 겪으며 보편적인 식용으로 삼지는 못한 것 같다고 했다. 1999년까지 발표된 제주의 향토음식 관련 연구물들을 참고할 때, 향토음식으로서 말고기를 언급하지 않거나 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말고기를 식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고기는 부정하다는 관념이 공존하는 것, 그리고 내륙에서는 말고기 식용이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현재복(여, 71세, 성산읍 고성리 거주, 2009. 1.20)씨는 말고기를 생으로 먹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 말고기는 삶아서 된장에 찍어 먹었다. 생으로 먹은 것은 말피와 말간인데, 말을 잡을 때 생피를 그 자리에서 한 움큼 먹었으며, 간의 경우 어른부터 한 두점씩 먹었을 뿐이다. 한편, 말고기 육회 등 생으로 말고기를 먹는 것은 일본의 구마모토 말고기육회를 보고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정영평씨 제보, 2009. 1.23/ 남, 74세, 성산읍 고성리 거주).

3) 이 글에 쓰인 ‘말고기 부정(不淨) 관념’은 제주 사람들이 특정한 날에 말고기를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꺼리며 삼가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4) 현재복씨 제보(2009. 1.20.)

한편 ‘부정한 고기’라는 측면에서 말고기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혼례음식으로 자리잡아온 돼지고기가 무속 제의를 앞두고 부정하다고 금기시되는 것과 묘하게 상반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즉 둘 다 부정한 음식이라는 관념이 있으나, 말고기의 경우는 제례나 명절에 부정하며, 돼지고기의 경우는 당굿날에 부정하다.<sup>5)</sup> 근현대에 들면서 당굿과 당신앙이 위축되어 온 것처럼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 관념은 신앙인 중심으로 좁혀져왔고 돼지고기 소비는 확대되어 온 반면, 말고기는 목장이 있던 중산간 지방의 사람들 중심으로 혼례나 제사, 명절 등을 피해 부정하다는 관념과 함께 알음알음 추렵의 방식으로 식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말고기가 육질이 부드럽고 말뺨가 관절염이나 운동선수들에게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말고기 소비가 다시 늘고 있다.

내륙에서는 아직까지 말고기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어 보인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건마육, 말젓 등을 식용한 것으로 볼 때 말고기를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인식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말이 식용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군마나 역마 등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과 우마도살금지책, 전통적으로 말이 가지는 신성성<sup>6)</sup> 등이 작용하여 말고기에 대한 기피 관념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내륙과 제주에는 말의 쓰임과 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고 이에 따라 말고기 식용 관습도 다르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다만 제주도의 말고기 식용 관습이 부정하다는 관념과 함께 형성되어 온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주도 말고기 식용 관습의 특수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고기 식용과 금기에 대한 인류학쪽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류가 말고기를 식용한 것은 말을 가축화한 기원전 4000년 이전<sup>7)</sup> 야생마를 사냥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레데릭에 의하면 아시아, 유럽,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말고기 희생관습과 식용 관습이 있었다.<sup>8)</sup> 그러다 말고기에 대한 금기 혹은 편견이 등장하게 되는데, 프레데릭은 그 원인을 이교도의 종교적 의식에서 말을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먹는 행동에 대한 기독교 같은 세계적 종교의 반발<sup>9)</sup>이나 말이 차지하고 있던 높은 지위나 말이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신성한 성격 및 신들과의 관련 때문으로 해석한다.<sup>10)</sup> 마빈 해리슨은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나 편견을 영양학적, 생태학적, 비용적 측면에서 설명하면서,<sup>11)</sup> 말고기에 대한 첫 번째 금기가 나타난 것은 인구가 밀집된 아시아와 중동의 농경문명이 그 이웃의 유목민들로부터 말을 수입하여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적응시키기 시작한 이후로 추정한다. 그는 말이 다른 가축과 비교하여 고기를 얻기 위해 치르는

5) 제주도의 당본풀이에는 식성에 따라서 신들이 갈등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당신에게 갈 때는 아직도 돼지고기를 금기한다. 필자는 돈식을 들러한 신들의 식성갈등을 돼지고기를 먹거리로서 받아들인 해촌 집단과 이에 거부 반응을 보인 중산간 집단의 문화적 갈등으로 해석한 바 있다(줄고, 2009, 『제주도 당본풀이에 나타난 식성 갈등 연구』, 안동대 석사학위 논문).

6) 천진기에 의하면 한국인의 말에 대한 관념은 신성한 동물, 상서로운 동물의 상징으로 수렵되어 신성한 동물, 하늘의 사신, 중요인물의 탄생을 알리고, 영물, 예언자적 구실, 영혼과 마을 수호신이 타는 동물, 장수 신랑 선구자 등이 타는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천진기, 1990, 『말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과 태도』, 『동계 성명회박사회갑기념 민속학논총』, 형설출판사, 350쪽).

7) Frederick J. Simoons, 1994, 『Eat Not This Flesh』, The Univ. of Wisconsin Press, p.168.

8) Frederick J. Simoons, Ibid, pp.168~180.

9) 대표적으로 교황 그레고리 3세는 732년 독일인에게 파견한 사도인 보니파키우스에게 말고기 식용관습을 금지시키도록 지시했다. ibid, p.187.

10) ibid, p.193.

11) Marvin Harris, 1985, 『Good to eat』, Simon and Schuster, p.17.

비용이 높아 비효율적이어서 금기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sup>12)</sup> 이후 말이 가축보다는 전마(戰馬)로서 유용성이 인정된 점, 말고기 금기를 선포한 교황의 칙령 등으로 유럽에서 말고기가 금지되면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소비되었다고 한다. 그는 유럽인들이 말고기를 좋다고 인식하면서도 오늘날 말고기 소비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 ‘말이 전쟁에서 쓰였을 때는 말이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었으며 다른 고기가 풍부했다. 그때 교회와 국가는 말고기 소비를 억제했다. 그러다 말이 많아지고 다른 고기가 희소해지자 금지가 풀리고 말고기 소비가 증가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 또다시 희귀해지고 다른 고기가 풍부해져서 말고기 소비는 하락 일로에 선 것’<sup>13)</sup>이라며 말고기 선호 및 혐오에 따른 소비의 문제를 식량 생산의 전체 체계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제주도의 말고기 식용 관습은 프레데릭이나 마빈 해리슨의 해석, 즉 세계적 종교의 영향이나 말에 대한 신성 관념, 혹은 가축으로서의 말의 비효율성, 희소가치성 등으로 설명해내기 곤란한 점이 있다. 그것은 제주도 사람들은 말고기를 지속적으로 식용해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말고기는 부정당’다고 하여 명절이나 제사에는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즉 특정한 날에는 제한하며, 다른 날에는 맛있게 먹어왔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 2. 제주도 말고기 식용의 전통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에는 말과 여러 가지 말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경흥, 덕천, 평양, 상원, 제원, 단양, 청원, 김해, 한림 등이다.<sup>14)</sup> 제주의 경우 1973년 발굴이 시작된 애월읍 괘지패총에서 말의 뼈가 발견되었고, 1973~74년 한림읍 월령리 한들굴에서는 무문토기와 함께 말의 이빨이 발견되어 청동기 시대에 이미 말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sup>15)</sup> 주었다. 2004년 4월 안덕면 사계리와 대정읍 상모리에서 사람의 발자국과 말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제주에서 말의 가축화가 다시 논란이 되었다.<sup>16)</sup> 문헌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말은 토종이라고 생각되는 과하마와 흉노계통의 호마 등 두 계통의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며, 고구려의 과하마는 제주도의 조랑말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sup>17)</sup> 하였다.

12) 말은 풀을 먹기에 폐지처럼 인간과 경쟁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 소나 양, 염소보다 훨씬 많은 풀을 먹는다. 말은 신진대사율이 높은 활동적인 동물로, 소보다 훨씬 칼로리를 태워 없애고 몸무게 1파운드당 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한다. 말을 가축으로 만들기보다는 우유와 고기의 공급원이 될 초식 반추동물로 가축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것은 말이 왜 늦게 가축이 되었는가를 말해준다. Marvin Harris, libd, p.91~92.

13) Marvin Harris, Libd, p.102.

14) 남도영, 1996,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박물관, 44~45쪽 참조.

15) 남도영, 위의 책, 46쪽.

16) 장덕지는 2천년~5만년전 사이에 말이 서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장덕지, 2005년 5월, 『목마장과 남제주, 『남제주문화원』). 그는 2007년 『제주마이야기』(제주문화)에서 안덕면 사계리 해안과 대정읍 상모리 해안가 말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1만년 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7) 한국 고대의 말은 위씨 조선에서 한무제에게 말 오천필을 보냈다는 기록이 전하며, 『三國志』 위지 동이전에는 마한에 ‘不知乘牛馬’, 변진에 ‘乘駕牛馬’의 기록이 전한다. 또 漢書에서는 ‘又出果下馬’라 하여 작은 말이 있었고 고구려조에서 ‘其馬皆小 便登山’이라 하여 산에 잘 올라간다고 하였다. -중략- 『後漢書』에서는 부여조에 ‘匈奴同俗 其國善養性 出名馬赤玉’이라 하여 명마를 산출한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과하마와 같은 작은 말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고구려조에서 ‘凡出三尺馬 云本朱蒙所乘馬種 即果下馬’라 하여 삼척마로 표현하고 있다. 즉 북방에서 유입된 것과 계대로부터 존재했던 이른바 과하마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은 시대가 내려오는 『신당서』의 백제 신라 모두에 과하마의 기록이 남아 있어서 오랫동안 소형마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한다. 따라서 북방의 흉노계통의 말과 함께 두 종류의 말이 있었으며, 소형마는 훗날 제주도의 조랑말과도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만영·김두철 공저, 1999, 『한국의 마구』, 한국마

한편 『瀛洲誌』에 실린 탐라국 건국신화인 삼성신화에 말이 등장한다. 삼성신화는 한라산 북쪽 모퉁이에 서 솟아난 세 신인이 벽랑국에서 온 사신과 세 공주를 맞이하여 이들이 가져온 오곡의 종자를 뿌리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쳐서 날로 번성하여 ‘탐라’를 이루었다는 내용이다.<sup>18)</sup> 여기서 특이한 것은, 부여왕 해부루가 금와를 발견할 때나 박혁거세의 탄생을 알리는 말의 경우처럼 내륙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말들은 신성하게 그려져 있는 반면, 삼성신화의 말은 오곡과 송아지와 함께 등장하여 농업의 기틀을 다지게 할뿐 신성함이나 숭배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 농업에서 말이 중대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것이 내륙과는 다른, 말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게 하고 또한 말의 식용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 가. 제주도 신화, 속담 속에 드러난 말고기 식용 문화

제주의 일반신본풀이인 <세경본풀이>와 구좌읍 세화리 당본풀이 <세화본향>에서 간접적으로 제주인의 말고기 식용을 살펴볼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하인인 정수남은 아홉 마리의 소와 말을 데리고 풀을 먹이러 가서 나무에 매어 놓고 물을 주지 않아 목말라 죽게 한 후, 모두 구워 먹고 가죽만 벗겨 몰래 집으로 숨어들어 간다. 또 구좌읍 세화리 당본풀이에선 육지에서 건너온 백주또가 소천국의 집에 갔다가 누린내가 ‘탕천한’ 가운데 소똥과 말똥이 있는 것을 보고 노하여 나온다.

종놈이 말을 하되, ‘말똥 썰 출처 줘서’, 자청빈 말 아홉 쇠 아홉을 출처 주난, 종놈은 낭고지를 갑네다. 종놈은 물똥 썰 물안 낭고질 가고 낭가쟁이레 물똥 썰 매어 두고<sup>19)</sup> 줌을 지는 구나. 종놈은 짐자단 깨여난 보난 물똥쇠는 물그리완 매딱 죽었구나. 종놈 정수남이는 죽은 똥똥들을 송골으로 매딱 뺏기멍 울밋볼을 최질런 지터두서 익어시나 한점 설어시나 한점 그번 혼점 저번 혼점 먹다보난, 쇠 아홉 물 아홉을 문 먹었구나. 해는 보난 서산에 지고 이만하민 어떻하린 가족을 짊어지고 집으로 오는 도중<sup>20)</sup>

소천국 사는 집을 당도하니 누릿내가 탕천한다. 쇠똥 똥이 이셨더라. ‘쇠도독놈 사는 디로구나’ 하여, 나오젠하니 치맛각을 붓잡는고, 털떡리고 나오니 홀똥이를 비어잡는고, 토시동이 전전마기를 내어놓고, 홀똥이를 기차두고, 천제할흐바님신디 오라서 맹암 드리니<sup>21)</sup>

이 두 신화에서는 소와 말을 먹는 사람(집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집단)이 구별이 되고, 대립이 된다. 세경본풀이에선 목동인 하인 정수남이, 세화본풀이에선 토착신으로 상징되는 소천국이 소와 말을 먹는

사회박물관, 343~344쪽.

18) 제주교육위원회, 1976, 『영주지』,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발행.

19) 제주도에선 기본적으로 말을 방목한다. 이 대목은 말을 나무에 묶어 두어 죽게 하는 일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말은 말줄이 나무에 걸리면 급한 성질에 바둥거리다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현재복씨 제보(여, 71세, 성산읍 고성리 거주/ 2008.11. 7. 전화인터뷰).

20) 진성기, 2005,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234쪽.

21) 진성기, 2005, 위의 책 390쪽.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자청비(농경신)		정수남(목축신)
세경	양반집 규수		목동(종) <sup>22)</sup>
본풀이	말고기 식용 기피 ↔		말고기 식용
	-말고사 음식		+말고사 음식
	백주또(양반)		소천국(목자)
세화	이주신/여신		토착신/남신
본풀이	말고기 기피 ↔		말고기 식용

위 신화가 당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sup>23)</sup> 말고기 식용 집단과 기피 집단을 상징하는 것이 가능하다. 말고기 식용 집단은 제주 토착민이며 목축업에 종사하는 집단이고, 말고기 식용 기피 집단은 육지에서 들어온 이주민 집단(주로 양반계층)이거나 토착 양반계층이라 할 수 있다. 위 신화 속 인물들은 특정 음식, 즉 말고기를 기준으로 자기 집단의 정체성과 타 집단의 그것을 구별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렵민족으로 육식을 하였으나 농경생활에 접어들어 육식을 하지 않다가 몽고의 영향으로 다시 육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sup>24)</sup> 제주도에선 몽고 침입 이전에 소나 말을 식용했을 가능성을 신화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예부터 전승되어 오는 속담에는 말고기 식용 문화를 여실히 반영해주는 것이 있어 주목된다. 속담은 관습적인 언어로서 당대 사회의 모습과 문화적 특징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말고기 식용과 관련한 속담은<sup>25)</sup> 아래와 같다.

- ① 말깨기론 떼(끼니) 살아도 쉼깨기론 떼 못 산다
- ② 말대가리 설쌌아 놓은 것 같다.
- ③ 말깨기 숨는 된 가지 말라.
- ④ 말 스정골(사골)은 쉼 스정골 쥐도 안 바꾼다.
- ⑤ 물은 간광 검은지름(대창자) 빵 잡나.

22) 세경본풀이 가운데, ‘돌머리 코시호여난 음식은 종이 먹는 법이우다.’(말고사 음식은 종이 먹는 법입니다), ‘이 물은 물이 먹는 물이우다.’ ‘아이구! 물그리완 죽어지키여 나 물 훔술 돌라(아이구, 물 먹고 싶어 죽겠다. 물 조금 나오), ‘에 요 물은 양반 먹는 물이우다’는 대목도 이와 관련되어 양반/종(서민)을 대립항에 포함했다.

23) 필자는 신화의 기능은 자연적이든 문화적이든 사실들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사회제도와 전통적 의례 및 관습을 정당화하며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따른다. Dawn E. Bastian and Judy K. Mitchell, 2004, 『Hand book of Native American Mythology』, ABC-CLIO, p. 2. 1997년 캐나다 대법원이 Gitksan이 제기한 소송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5만5천km<sup>2</sup>에 해당하는 땅의 소유권의 증거로 복서해안 곱어미 신화를 제시한 것을 인정할 사실은 신화와 현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같은 책, 30쪽).

24) 유애령, 1999, 『몽고가 고려의 육류 식용에 미친 영향』, 『국사관논총』 제87집, 국사편찬위원회, 222~223쪽 참조.

25) ①-⑥은 고재환의 『제주속담사전』(민속원, 2002년)에서, ⑦-⑩는 천진기의 『한국 말 민속론』(한국마사회 박물관, 2006년) 중 <말의 민속모형-구비전승되는 말이야기, 말속담>에서 발췌함.

- ⑥ 물똥도 참지를 발랑 구민 먹나.
- ⑦ 말 한 마리 다 먹고 말쫓내 난다고 한다.
- ⑧ 말 잡은 집에 소금이 해자(解座)라.
- ⑨ 말 죽은 밭에 까마귀같이.
- ⑩ 말 죽은데 금산 채장수 지켜보듯 한다.
- ⑪ 말고기를 먹으면 과일 난산한다./애기 가정 말고기를 먹으면 좋다.
- ⑫ 말고기를 먹으면 어지럼증에 좋다.
- ⑬ 말살에 소뻐다.
- ⑭ 말고기 차반.

①은 말고기로는 끼니를 삼는 것이 가능하지만 쇠고기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말고기는 소화도 잘 되거니와 오래 먹어도 물리지 않지만 쇠고기는 쉽게 물려서 거북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말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금기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통이나 증풍기 있는 사람에게 효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민간요법으로 선호되고 있다.<sup>26)</sup> 풍병 환자를 비롯, 어떤 병의 환자도 말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지금도 민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폐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말고기가 좋다는 말이 이서. 말괴기는 어떤 병이라도 가리지 않는다고, 어떤 환자라도 말고기를 먹으면 좋다는 거지.<sup>27)</sup>

②~③은 말고기를 삶아 먹었음을 알려준다. 말고기는 좀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삶아 먹고 그렇지 않은 집에선 국을 끓여 먹은 것으로 보인다.<sup>28)</sup>

(말고기는 어떻게 드셨어요?)

—삶아서 먹지. 우리 옛날엔 이 아버지가 추렴해와서. 삶아가지고 밭에 갈 때 가지고 강 대차반지에 넣어 나무그늘에 매달아놓고 일하다가도 먹고 점심 먹을 때도 먹었지.

(국 끓여먹는다는 말도 있던데요)

—우린 한번도 국 끓여 먹젠 안 했어. 삶은 거만 먹었주.<sup>29)</sup>

26) 고재환, 앞의 책, 191쪽.

27) 현재복씨 제보(2009. 1.20).

28) 진성기는 말고기를 재료로 한 향토음식으로 물괴기국, 물미주리죽, 물괴기볶음, 마술음 네 가지를 소개한 바 있다(진성기, 1985, 『남국의 향토음식』, 제주민속연구소, 55~70쪽 참조).

29) 현재복씨 제보(2009. 1.20).

③은 말고기는 삶으면 유난히 양이 많이 줄어들므로 의심받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 한다.<sup>30)</sup> ④는 민간요법에 말뼈가 신경통이나 중풍이 있는 사람에게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sup>31)</sup> 나온 말이다. 지금도 누군가 말뼈를 주문할 경우, 덩달아 말추림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sup>32)</sup> ⑤는 말추림을 할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간과 검은지름임을 알 수 있다. 간과 검은지름(막창자)은 제일 맛이 있는 부분으로<sup>33)</sup> 지금도 똥사람에게 먼저 대접한다.

요즘 소나 말은 지방질이 많으니 옛날엔 먹을 것이 없으니 지름이 잘 안 켜. 말피기는 검은지름이 가장 맛있는데 대창(내장 장벽)에 기름 붙은 것을 검은지름이라고 하는데 삶으면 거명해져서 검은지름. 간은 쪼로 소중하니까 우선 잡으면 생으로 한두 점씩 먹는데 제일 웃어른부터 챙기고.<sup>34)</sup>

⑨, ⑩은 말이 죽으면 이권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말은 고기부터 뼈, 말총, 말가죽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용되었으므로 이러한 속담이 나온 것 같다. ⑪, ⑫는 말고기가 어지럼증에 좋으나 임신부에게는 난산을 가져와 좋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 말고기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신중에 먹으면 좋다는 말과 먹으면 난산한다는 말이 있어, 말고기 식용을 둘러싼 일종의 담론이 진행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옛날에도 말뼈는 좋다고 해서. 무릎 아프면 말뼈 달여 먹으면 좋대. 요즘 허리 아프면 말뼈를 달여 약해 먹주. 말고기 먹으면 풍병 예방한다고 하고, 임신부가 먹으면 열두달 과월한다고 하고, 임신 중 먹으면 애기한테 좋다고 하고, 애기 낳으면 사흘만에 죽는 일이 많은데 말피기 먹으면 안 죽는다고. 화상풍인지 안 걸린다고.<sup>35)</sup>

이들 속담은 제주도 말고기 식용의 문화를 여실히 반영해주며, 말고기 식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속담 ④, ⑤, ⑪, ⑫는 요즘에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말고기가 풍병이나 어지럼증에 좋다는 속신과 더불어 명절이나 제사에 부정하다는 관념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말고기 식용을 둘러싼 갈등이나 말고기 식용에 대한 제재를 가정할 수 있다.

30) 오영주는 ③을 '말고기 삶는데 열전 거리다가는 안어먹은 것 없이 애꿎게 밀도살의 누명을 써서 관원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나온 말'이라 설명한다(오영주, 2006, 『제주도 말고기 음식 문화와 영양 기능성』, 『감귤원예지』 9-10월호, 제주 감귤 농협, 122쪽). 이 해석은 관에서 말고기 사용을 통제했다는 본고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31) 고재환, 앞의 책 194쪽. 말뼈가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좋다는 것은 꽤 널리 알려져 있어 말뼈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누군가 말뼈를 주문하면, 말 한 마리에 뼈만 백이십만원에서 백오십만원에 거래되며, 남은 말고기를 가지고 말추림에 참여하게 된다. 김대호씨 제보(남, 41세, 제주시 거주/2008. 9.13).

32) 김옥자씨 제보(여 61세, 성산읍 은평리 거주/2009. 1.22).

33) 고재환, 앞의 책 194쪽.

34) 현재복씨 전화인터뷰(2008.11.17).

35) 현재복씨 전화인터뷰(2008.11.17).

## 나. 문헌을 통해 살펴본 제주와 내륙의 말고기 식용 문화

조선시대 말은 육축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고 식용 풍습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제주에서 매년 선달에 암말을 잡아서 건마육을 만들어 조정에 진상했다.

태조 8권, 4년(1395) 7월 1일

-제주에서 공(貢)바치는 마른 말고기를 금하였다. 제주의 풍속은 매년 선달에 암말을 잡아서 포를 만들어 토산물로 바쳤는데, 도안무사 황군서(黃君瑞)가 제주에서 돌아와서 아뢰므로 이를 파하게 하였다.<sup>36)</sup>

위 기록에서 주목할 것은, 매년 선달에 암말을 잡아 말고기포를 만들어 ‘제주의 토산물’로서 바쳤다는 것과 그것이 제주의 풍속이라는 점이다. 즉 당시 말고기포는 제주의 토산물, 일종의 향토음식이었던 것이다. 물론 이 기록은 조정에서 세공으로 바치는 말고기포를 그만 두게 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에서 말의 식용을 금하며 말을 통제하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말고기 포육 진상을 금지했다고 해서 말고기 식용 금지가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세종 29년 조신들이 제주 목사 이흥문에게서 말고기포를 뇌물로 받아 논란이 되었다. 세종은 ‘전조(前朝)의 옛 풍속이 그냥 있어 식물(食物)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찍이 드러난 법령이 없다’며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나 사헌부에서 이흥문이 ‘살아있는 말을 잡았을 것이며 여러 사람에게 뇌물로 바친 이상 한두 마리 잡은 것이 아닐 것’이라 하여<sup>37)</sup> 이흥문을 귀양 보낸다. 여기서 ‘전조의 옛 풍속’을 통해, 말고기를 먹는 풍습은 고려조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8)</sup>

또 말고기포는 제향에도 썼음을 「송자대전」 己丑奉事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시열은 기축봉사에서 방납의 문제를 언급하며 중형 송시영에게 들은 말고기포의 폐단을 언급했다.<sup>39)</sup> 제향에 쓸 편포를 징수할 때 읍에서 올린 고기는 쇠고기를 사용해 썩어서 쓰지 못하므로 말고기포를 이용하는데 읍리가 열배의 값을 주고 말고기포를 구하고 그 읍의 백성에게 몇배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쇠고기포가 쉽게 상하므로 말고기를 섞어 만들어 사용하였고, 제향의 편포로 말고기가 쇠고기보다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보다 앞서 세종 12년에는 맹득미가 말고기로 쌀을 사고, 다시 쌀로 베를, 그 베로 다시 말을 사는 등 말 또는 말고기가 쌀, 베와 더불어 화폐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36) 『태종실록』 권1, 태종 1년(1401) 5월 2일 기사에도 제주에서 말린 말고기[乾馬肉]를 올리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37) 『세종실록』 권116, 세종 29년(1447) 윤4월 20일 기사 참조.

38) 말고기 식용은 육지의 경우 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산림경제』에 소개된 ‘말곰(말고기 곰국)의 요리법이나 말고기 저장법은 모두 원의 요리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필용』을 참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 지배하의 고려는 불교가 국교인 만큼 육류의 식용은 보편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39) 『송자대전』 권5, 기축봉사(한국고전번역원)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신의 종형(從兄) 송시영(宋時榮)이 일찍이 각사(各司)를 맡았었는데, 신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제향에 쓸 편포(片脯)를 징수할 때 각 읍에서 바친 것은 으레 모두 썩어 변질되므로 부득이 물리치면 10배의 값을 가지고 서리(胥吏)에게 청해서 방납하게 되는데, 그 방납된 것은 윤기가 나고 신선하다.’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았더니 ‘쇠고기는 으레 좋지 않기 때문에 말고기를 섞어서 만든다.’ 하고, ‘말고기는 어떻게 얻는가?’ 물었더니, ‘자연사(自然死)한 말이다.’ 하였습니다.

40) 『세조실록』 권38, 12년(1466) 윤3월 4일 기사 참조.

한편 『산림경제』 권2 <치선>—어육편에선 돼지고기를 저장하는 방법과 말고기 저장법이 동일하며<sup>41)</sup> 「거가필용」을 인용하여 말곰을 요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sup>42)</sup> 또 『산림경제』 권3 <구급>—제수육독(諸獸肉毒)과 「동의보감」에는 말고기를 먹고 중독이 되었을 경우의 민간요법이 제시되어 있다.<sup>43)</sup> 특히 연산군처럼 백마고기가 정력에 좋다고 즐긴 왕이 있는 것을 볼 때<sup>44)</sup> 사대부나 민간에서도 말고기를 선호한 이들이 있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 말가죽으로 만든 말다래나 가죽신 등이 중국 사신이나 사대부들에게 선호되었음을 볼 때<sup>45)</sup> 일정 정도의 말도살과 함께 말고기 식용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말고기포 진상 금지나 우마도살금지책<sup>46)</sup>에도 말고기 식용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말고기 식용이 보편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말은 마육, 마유, 군마, 어승마, 농마(農馬), 교역마, 각종 말가죽 및 말 부산물로 만든 가공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군마로서의 이용이 가장 중시되었기 때문이다.<sup>47)</sup> 그리하여 정여창 같은 이는 말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깨끗한 성품을 인정받았다.<sup>48)</sup>

### 3. 말고기 식용과 말고기 식용 부정(不淨) 관념 분석

조선조에 말고기 식용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정책적인 측면 외,<sup>49)</sup> 오래전부터 있어온 말에 대한 신성관념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도와 달리 내륙에선 말이 승배(마제의 대상)의 대상이기도 하고 천명의 대리자이기도 하며 맹약의 희생이 되기도 했다. 말은 무덤 속에 중요한 부장물로 들어가기기도 하고 신화나 전설 속에서 성스럽게 그려졌으며, 아직도 마을제당에서 신승물로서 혹은 신으로서 모셔지기도 한다.<sup>50)</sup> 또한 말은 군마나 역마로서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국가의 마정정책과 더불어 특별히 관리되었다. 따라서 말은 식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그리고 특별한 계층이 전유하는 동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신화에서부터 말의 신성성을 찾기 어렵다. 말은 오래전부터 말을 발리거나 방에 끌고 농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스러움보다는 다목적적인 실용성의 의미를 띠었다. 제주도 사람들에게 ‘농기구의 하나였다’라고 인식되는<sup>51)</sup> 말은, 죽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잡아

41) 『산림경제』 권 2, <치선> 어육편에선 약부남육법(岳府臘肉法)을 돼지고기를 들어 설명하며 소·양·말고기도 모두 이 방법으로 한다고 했다.

42) 『산림경제』 권 2, <치선> 어육편에 ‘말고기편(煮馬肉)은 냉수에 넣고 뚜껑을 닫지 말고 술을 넣고 곤다.’고 나와 있다.

43) 『산림경제』 권 3, <구급>편 참조. 말고기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 처방으로 부추즙을 비롯, 뱀가지를 제시하였다.

44) 『연산군일기』 권48, 연산군 9년(1503) 2월 8일 기사(“백마 가운데 늙고 병들지 않은 것을 찾아서 내수사로 보내라” 하였으니, 흰 말의 고기는 양기를 돕기 때문이었다.) 참조.

45)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1423) 4월 10일 기사(명의 사신은 백마피 말다래를 요구함) 및 『연산군일기』 권22, 연산 3년(1497) 4월 15일 기사 참조.

46) 세종 8년(1426)에는 우마를 도살한 목자의 경우 ①관장 100대에 ② 刺字하고 ③몸은 수군에 충당하며 ④ 가산을 몰수했고 세종 26년에는 범법자를 초벌, 제벌, 3벌로 나누어 3벌은 사형에 처하였다. 『한국 마문화 연구의 현대적 조명』(마사박물관, 2006.10.26/마문화연구총서 완간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18쪽). 『현종실록』 권15, 현종 9년(1668) 8월 7일의 형조 금제조(禁制條) 관련 기사 참조.

47) 마사박물관, 2006, 위의 책 19쪽 참조.

48) 정여창(鄭汝昌)은 성품이 단아하고 정중하며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범재나는 채소를 먹지 않고 소와 말고기를 먹지 아니하였다.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남효온의 찬 중에서.

49) 『현종실록』 권15, 현종 9년(1668년) 8월 7일 형조의 금제조 8개조항, 한성부의 금제조 6개 조항에 모두 牛馬肉禁이 포함되었다.

50) 천진기, 2006, 『한국 말 민속론』 참조(한국마사회 박물관).

먹어야 하는 가축이었다. 이것은 내륙의 마을 공동체의에서 신승물이나 신으로서 말이 모셔지는 것과 달리, 제주도에서는 말의 증식을 위한 물부림제, 백중제당곳이 열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sup>52)</sup> 여하튼 말고기를 먹으면서도 한편으로 ‘말고기는 부정하다’는 관념이 존재하는 것은 문화적 비밀이다. 말고기가 부정하다는 관념은 말의 식용을 제한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선후관계를 따지면 말이 통제의 대상이 되면서, 통제의 한 방편으로서 ‘부정하다’는 관념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말 이후 말은 중요한 진상품목이었고 또 외교물품이었기에 통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 가. 가축으로서의 말의 쓰임과 말고기 식용 부정 관념의 의미

제주도에서 말이 식용되어온 역사가 짧지는 않으나 말고기 식용이 보편적이었다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 그것은 말고기는 ‘부정하다’는 관념 이전에 말이 오래전부터 ‘밭을 밟리고’, 마을마다 여남은 개씩 되는 방에를 끌었으며, 농업 생산물이나 각종 짐을 운반하며 ‘농기구처럼’ 소용된 가축으로서 중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말똥은 부족한 연료를 충당하는 데 긴요하게 쓰였다.<sup>53)</sup> 그런데 말이 주는 이로움에 비하면 말을 사육하는 것은 의외로 비용이 들지 않고 쉬운 편이었다. 중산간 지역에는 초지가 많았고 마을별로 마소잡 등을 통해 번을 돌아가면서, 혹은 테우리에게 맡겨서 말을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말테우리는 목동이라. 말 가꾸는 사람. 한 마을에 몇 사람씩 있었지. 옛날 마소잡이나 목장잡이 있었는데, 축산계 같은 거야. 마을 공동 목장을 운영하면 목장계. 밭 밟릴 때는 소보다 말을 무리지어서 말테우리한테 말을 빌려 몇 시간씩 밟아주게 했지. 조밭이 3백평이면 한 시간 정도. 하루 몇 천평 밟기도 하는 디, 밟주인에게 밭 밟린 값을 받지. 옛날 소는 밭을 갈고 말은 밭을 가는 용도로는 사용 안 했어. 말은 쓸개가 없어서 성급하게 달리니까. 말은 주로 (경작한 거. 농사지은 거)운반하는 데 쓰고 (방에를 소가 안 끌고 말이 끄는 건 왜죠?) 소는 너무 뜬다고 빨리 안 걸어서. 말은 성급해서 탁 채찍 때리면 살랑살랑 뛰니까 그래서 말로 방에를 한 거주.<sup>54)</sup>

고성서는 식량이 원체 부족했으니까 일년에 가끔 먹었지. 말은 농기구에 속한 거라. 웬만해서는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

말은 ‘일종의 농기구’로서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말고기를 아예 먹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밭 밟리고 나서’, 혹은 가을에 상하거나 병든 말이 있으면 동네에서 추렴을 하여 먹었다.

51) 정영평씨 제보(2009. 1.18) “말은 농기구에 속한 거라. 웬만해서는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

52) 말과 관련된 마을 공동체의(천진기, 1990, 위의 책 참조)는 말이 그만큼 신성시되었음을 알려준다. 제주도의 우마증식을 위한 백중제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

53) 말똥을 연료로 사용한 것은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노걸대언해』에는 중국 상인에게 말과 인삼 등을 판매하는 고려의 상인들이 말똥으로 추위를 달래는 장면이 나온다.

54) 정영평씨 제보(2009. 1.18).

(옛날 언제 말고기를 드셨는지요.)

—여름, 가을로 추렴해서 먹었지. 옛날 아무렇게나 말을 길령 말 다리가 상하거나 어디 다쳐서 뼈가 이상이 생기거나, 꼬부랑말 절뚝거리는 말 이시든 밧 발리는 일 끝나면, (6월말 쭉일거라,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동네서 잡아먹었지. 말을 어디에 말줄로 매어놓거나,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 나무뿌리에 줄이 감기면 말이 와랑비랑 난리를 치면 죽거나 뼈가 부러지꼭 하면 잡아 먹주.

말고기는 보편적인 음식은 아니었지. 말목장 있던 지역의 사람이 먹었던 거지. 지금도 말고기는 제주도보다 남제주군이나 서귀포에서 많이 먹지. 여기에 말목장이 많으니까.<sup>55)</sup>

말고기는 말이야 지금도 부정한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도 그랬어. 제사 일주일전까지는 안 먹었지. 동네서 추렴해서 잡으면 빨리빨리 먹어야 해. 오래 보관 안 했지. 쇠고기는 장항에 담갔다가 오랫동안 먹었는데, 말고기는 며칠 안에 삶아서 다 먹었어. 된장 찍어서.

그런데 말고기처럼 육질이 좋고 ‘끼니 삼을 수 있는’ 고기에 부정하다는 관념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범벅도 부자간에 금을 그어 먹어라’할 만큼 먹을 것이 귀했다. 1960년까지만 해도 도민들 대부분은 무찬반상 내지 침액을 내기 위한 염기로서 ‘출레’라는 1반찬상이 고작이었다.<sup>56)</sup>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제주 여인들은 식량이 귀하다 보니 꼭 먹을 만큼씩만 만들었다.<sup>57)</sup> 각 마을의 위치나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제주 사람들의 밥차림은 보리밥과 된장국, 김치, 젓갈, 생나물이나 익힌 나물 한두 가지가 기본이었다.<sup>58)</sup> ‘곤밥(쌀밥)’은 명절이나 제사 때만 겨우 먹었고, 육류는 일상음식으로 거의 자리를 잡지 않았다. 육류음식은 일상음식이기보다는 잔치, 명절, 종교행사 등이 있을 때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sup>59)</sup>

육류가 일상음식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잔치나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으로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기르지는 않았던 우리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sup>60)</sup> 한편 잔치나 명절에 먹을 수 있었던 육류음식은 희소가치성과 더불어 식용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사나 명절에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반면에 말고기는 먹을 수 없었던 것은 말고기 식용의 제한 혹은 금기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기늠하게 한다. 여기선 제주도에서 식용이 가능했던 다른 ‘육고기’<sup>61)</sup>와의 비교를 통해 접근한다.

55) 김옥자씨 제보(여, 61세, 성산면 온평리 거주/ 2009. 1.22).

56) 송성태, 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146쪽.

57) 김지순, 1998, 『제주도 음식』, 대원사, 21쪽.

58) 김지순, 1998, 위의 책, 21쪽. 황혜성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형설출판사)에서 당시 제주인들이 겨울과 봄에는 두끼만 먹고 여름과 가을은 세끼를 먹는다고 했다.

59) 허남춘·주영하·오영주, 2007, 『제주의 음식문화』,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 40쪽.

60)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 4월 20일 기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토풍은 가축을 기르는 것에 일삼지 않아 혹 손님 접대와 제사의 수용에 있어서도 오히려 턱턱지 못하니’라는 대목이 있다.

61) ‘육고기(陸고기)’는 제주 민간어이다. 제주사람들은 생선 즉 ‘바닷고기’와 구별하여 가축의 고기를 ‘육고기’라 지칭한다. 이 글에서는 제주 사람들의 표현대로 ‘육고기’를 그대로 썼다.

제주도에서 식용해온 가축으로 소, 말, 돼지, 개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말고기와 돼지고기, 개고기에는 ‘부정하다’는 의미가 붙는다. 가축의 사육은 ‘부림’과 ‘식용’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먹기에 낫음’ 혹은 ‘먹기에 좋음’ 등의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가축의 사육, 용도, 금기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1950~70년 경 가축의 사육 및 식용 등에 대해 제주도 성산면 온평리, 고성리 거주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sup>62)</sup>

<가축의 쓰임과 식용 및 금기>

구분	보유	주된 용도	사육 방식	부산물 이용	부정관념	금기	먹는 날	먹는 횟수	먹는 방법	저장	향토 음식	특별음식	비고
소	없는 집이 더 많았음	밭갈이	방목/우사(겨울)	소거름소똥연료	×	×	제사, 명절 등 큰일	아주 가끔 1, 2년에 한번	국/적	○	쇠고기장	쇠고기엿	
돼지	집집이 한마리씩	×	집/음식쓰레기	돌거름	당곳	○	혼례	잔치나 혼례일 1년에 한두번	삶아먹음 국	×	몸국 똥새끼회	돼지고기엿 <sup>63)</sup>	
말	없는 집도 있음	밭갈리기 말방에	방목/우사(겨울)	말똥거름 말똥연료	제사 명절당곳	○	가을/여름	1년에 한두번 <sup>64)</sup>	삶아먹음 국	×	마삼음/ 말피국	×	이마 불식
개	흔치 않음	사냥 (사치품)	집/남은 음식	×	제사 명절당곳	○	복날	거의 없음	개장	×	×	개고기엿 <sup>65)</sup>	정구 불식

위 표를 보면 쇠고기만 유독 부정하다는 관념과 금기가 없다. 그것은 쇠고기가 귀하며 ‘공인받은 육고기’로서 삼성제를 비롯한 제례나 명절에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쇠고기는 너무 귀했고, 있는 집에서만 제상에 올랐다. 추렴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했으므로 거의 먹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쇠고기가 생길 경우 간장이나 된장항아리 속에 넣어 보관하여 먹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sup>66)</sup> 물론 소는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이 더 많아 부유함의 상징이었다. 전통적으로 소는 밭갈이와 밭발림<sup>67)</sup> 등 농경을 위해 사육했다. 제주에선 소를 말과 같이 방목하였고<sup>68)</sup> 사육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

돼지고기는 언젠가부터 혼례음식으로 자리잡았다. 집집이 한두 마리씩은 돼지를 길렀으나, 말이나 소처럼 농사에 긴요한 가축은 아니었다. 돼지는 키워서 팔아 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돌거름을 밭에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쓸 ‘육고기’로서 사육할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62) 이 표는 성산면 지역에 한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제주도의 식생활 보고서에 기록된 ‘육류 식용’에 관한 다음 기술은 이 표와 일맥상통한다. “쇠고기는 농사용으로 기르며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추렴을 하였고, 돼지고기는 상이 나가거나 잔치 등 큰일이 나면 잡게 된다. (중략) 제주에서 말을 기르는 것은 농사용과 식용이 주목적이라고 하나 조사에서 보면 말고기 식용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았다. 말고기회는 잘 안 먹었고 주로 풍걸린 사람들이 약으로 먹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말고기는 잘 먹지 않는데, 주로 목장부근인 산간지역(성읍, 삼당)에서 먹는다고 들었다. 봄에는 풀냄새가 나기 때문에 8월 지나서 잡아야 맛이 있다”(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제주도의 식생활』, 44쪽).

63) 『제주도의 식생활(식생활조사보고서)』(1995)에는 제주도에서는 보신용으로 약재용으로 엿을 고는데, 이때 닭, 돼지고기, 꿩고기, 마늘 등을 넣는다고 한다.

64) 고기를 먹는 횟수는 마을의 위치, 집의 형편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마소를 여남은 마리씩 보유했던 온평리 중순집 현재복씨는 1년에 네댓 번 추렴한 말고기를 먹은 반면, 고성리 정영평씨는 1년에 한번 먹기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정영평씨 제보(2009. 1.23).

65) 개고기엿은 『제주도의 식생활(식생활조사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으나 제보자의 말로 확인한 것이다.

66) 현재복씨 제보(2009. 1.20).

67) 마소의 밭발림에 대해선 고헌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대원사, 98쪽) 참조.

68) 제주도의 전통적인 마소치기는 고헌민, 위의 책 참조.

음식쓰레기가 적으면 해초를 뜯어와 먹일 만큼 사육에 신경이 쓰인 가축이었다.<sup>69)</sup>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제물을 기피하는 당신을 모신 당에 가기 십여일 전부터 식용을 금한다. 이때의 ‘부정함’은 ‘신’에게 부정 한 것으로 ‘말고기의 부정함’과는 다르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유교식 포제와 집안 제사, 명절상에 올리므로 ‘공인 받은 육고기’라 할 수 있다. 이 점이 오랫동안 식용해오면서 한편으로 먹으면 ‘부정하다, 부정탄다’는 관념이 있는, 돼지고기와 말고기의 차이이다.

말은 말방에, 밧발림, 농산물 운반 등 농경에 중요하게 쓰였다. 소만큼 귀하지 않아서<sup>70)</sup> 집집이 한두 마리씩은 소유하면서 말을 여러 용도로 이용했다. 그리고 말을 부리다가 못쓰게 되면 여름이나 가을에 추렴하여 먹었다. 마을별로 있던 마소집에 가입해 말을 사육하였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부리기에 좋은 유용한 가축이었다. 따라서 ‘농기구로서’ 알뜰하게 말을 사용하고 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잡아 먹은 제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말고기는 먹으면 부정탄다’고 할 만한 까닭이 달리 없다.

여기서 말고기가 제사, 명절, 당굿<sup>71)</sup> 등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중요한 의례에 모두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굿을 제외하면 말고기는 제도화된 의례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그 의례의 중심에 국가 권력이나 지방 권력 등 권력의 통제가 작용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말고기가 부정하다는 관념은 사회적 통제 혹은 제제의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개고기도 부정했다고 하는데—)

개나 말이 어떻게 영리하기도 하고 가축으로 기르는데 어떻게 말은 일하는 데 사용하고 개도 집안을 지킨다든가 사냥이라고 핑 잡을 때 쓰고 그런 것을 마구잡이로 도살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못 먹게 한 거주. 신에게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 말의 일정량을 진상해야 했으니 도살을 금지하고, 부정하다고 한 거지. 옛날에는 동네 몇몇 사람이 벼슬하고 학문하는 사람이 극소수라.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때, 그런 방법으로 못 먹게 한 거지. 요즘은 식문화가 발달하니 개의치 않지만.

개고기도 말고기도 거의 못 먹었지. 어렸을 때. 개는 집안 넉넉한 사람만 키우고, 일종의 사치품이라. 1~20프로만 개를 키웠고, 매 집집마다 키우지 않았어. 개는 혼치 않았어. 선비들이 서민들이 먹어서는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못 먹게 한 거지. 쇠고기도 혼치 않았는데,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우연히 소가 못쓰게 되어서 도살하면 참여하여 조금 먹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대소사 때 소비할 것은 고기로 해야 하는데 마을 안에서 돼지를 못 구하면 이웃마을에서 구하다가 (잔치하면) 한 두점 먹는 것이 다지.<sup>72)</sup>

한편 개는 60년대 이전만 해도 혼치 않은 동물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개에게는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

69) 김대호씨 제보(2009. 1.21). “우리 어렸을 적엔 이 바다에 강 해초를 뜯어 돼지를 먹였주.”

70) 제주에 소는 적고 말은 많다는 기록은 『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1431년) 1월 28일 기사에도 보인다.

71) 말고기가 당굿에 부정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린 것’으로서의 의미이다. 돼지고기처럼 당신(堂神)이 돼지고기를 혐오하여 단골들이 기피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말고기의 부정함’은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72) 정영평씨 제보(2009. 1.20).

을 주는데, 제주에서는 사람이 먹을 것도 귀했기 때문이다. 개가 ‘일종의 사치품’이었다는 말은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한다. 앞의 표에서처럼 개는 주로 핏사냥 갈 때 필요했는데, 그것은 몇몇 극소수의 토호나 양반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고 한다.<sup>73)</sup>

그런데도 ‘정구불식(正狗不食)이고 이마불식(二馬不食)이라’ 하여, 정월에 개를 먹으면 재수가 없고 이월 말은 독이 있어 먹으면 죽거나 병이 생긴다고 경계를 하고<sup>74)</sup> ‘본향에 갈 때 비린 걸 먹으면 부정탄다’고 하면서 ‘개고기와 말고기’<sup>75)</sup>를 비린 제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실 개가 흔하지 않았으며 말 역시 농경을 위하여 사육하였으므로 ‘정구불식(正狗不食)이고 이마불식(二馬不食)이라’는 명령형 언술은 제주 민간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 말은 조어적으로도 그렇지만<sup>76)</sup> 양반 계층이나 토호들이 사냥이나 진상 등에 요긴했던 말과 개를 민간인들이 먹지 못하도록 한 데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말고기나 개고기의 식용을 통제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언술로 말고기 식용 부정관념 생성의 단서가 된다.

#### 나. 사회적 신분 표식<sup>77)</sup>으로서의 말고기 식용과 식용 금지

말고기가 부정하다는 관념은 제주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말을 이용하고 가치를 부여한 지방관리와 양반, 토호들 등 지배 계급 즉 권력에서 만들어졌다는 가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성산읍 신평리의 당본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평리의 본향신인 양사또는 표선면 토산리 당신인 개로역 한집을 소실로 데려오는 길에, 개로역 한집이 가마 속에서 목말라 하다가 말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자 부정하다며 내쫓는다(이본 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한집을 모시며 말을 잃어버렸을 때에 마소를 찾아달라고 빌었고 그러면 한집은 마소를 찾아주었다(이본 ③).

넷기 양스또가/토산당의 개로역 한집을/소실로 들안 올 때에/개로역 한집이가매쏘굽이서 애가 쾡쾡 들란/ 물먹 구정현연/가매알로 느런/질혜 물콧엿 물을/ 보랏낭 뽕래기로/물을 빨아먹고/물콧엿 터럭이/쫓궁기레 드난/물 흐머 리 다 먹은간/썩간 흐고/노린내가 당천흐니/양스또가 흐는 말이/“큰부인 노릇 못흐키여/부정흐니/넛창물이나 하영 먹영 살리”/현연/므실 냇가운디래 브리난/자운당을 설런흐였수다/가는 오는 사름들의/ 제인정을 반양 삶네다/-자 운당본풀이 이본①<sup>78)</sup>

73) 김대호씨 제보(남, 42세, 제주시 거주, 2009. 1.22).

74) 황혜성, 1977, 앞의 책 240쪽.

75) 진성기, 2002, 『제주도 금기어 연구 사전』, 제주민속연구소, 태화인쇄소, 26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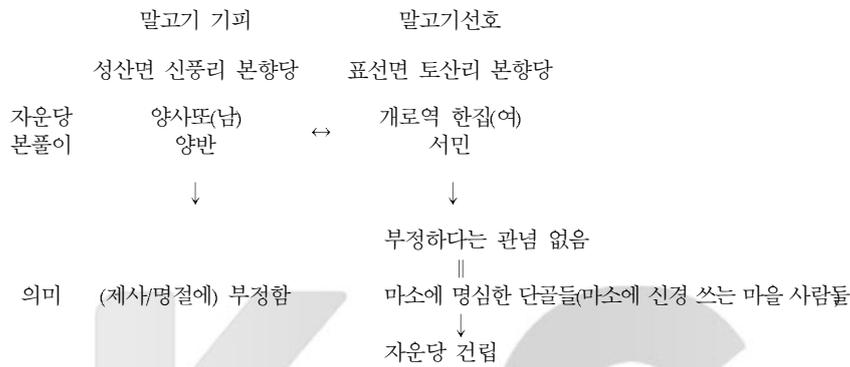
76) ‘정구불식(正狗不食)이고 이마불식(二馬不食)이라’는 모두 한자어로 이루어져 말고기 식용과 관련한 여타의 속담이 제주 사투리로 되어 있는 것과는 차별적이다. 금기형의 한자어 조어법을 고려해도 이것은 지방관을 비롯한 양반 계급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77) 이 말은 앤더슨의 논문 『Me, Myself, and the Others—Food as Social Marker』에서 ‘Social Marker’를 번역한 것이다. E. N. Anderson, 『Me, Myself, and the Others—Food as Social Marker』, 『Everyone Eats—Understanding Food and Culture』, 2005, New York Univ. Press.

78) 진성기, 1991, 앞의 책, 450~451쪽.

신평본향의 큰부인이/넋그잇 물을 먹어오니/본향 한집이/ 부정하다 현/ 내조차부난/ 넋그에 간 좌정현/당이우  
다/ 이 므실서 므쉬를 일러볼민/이 당에 강 빌곡/므쉬 좇아 줍셉 현민/한집이서 므실 좇아주는/영급흔 한집님이우  
다 므쉬에 멍심흔 단골들이/강 쥬 지넵네다-이본③79)

위 신화를 보면, 토산리 당신 개로역 한집은 말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고 말발굽의 털이 콧구멍에 들어  
가 ‘말 한 마리를 다 먹은 듯’ 했는데, 신평리 양사또는 ‘부정한 년’이라 하여 개로역 한집을 냇가에  
버리고 가버린다. 토산리 개로역 한집에게는 말고기가 부정하지 않으나, 신평리 양사또에게는 부정하여  
금기시되는 것이다.



위 자운당본풀이와 앞서 살펴본 세화본향, 세경본풀이에 반영된 말고기 식용 기피 집단과 말고기 식용  
선호 집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말고기 식용 기피 및 선호 집단>

	말고기 식용 기피 집단	말고기 식용 선호 집단
세경본풀이	자청비(양반집규수/ 농경신)	정수남(하인/목축신)
세화본향	백주또(양반/이주신)	소천국(목축/토착신)
자운당본풀이	신평리 양사또(지방관)	표선리 개로역 한집(서민/소실)

위 세편의 신화를 보면, 제주의 토착민에 해당하는 존재들은 모두 말고기를 식용하는 반면, 양반이나  
이주한 존재의 경우 말고기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대목에서 음식(말고기)이 ‘사회적 신분 표식  
(social marker)’으로서 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나와 타인, 타 집단을 차별하고 분리하는

79) 진성기, 1991, 위의 책, 451쪽.

것으로서 가능하다는 앤더슨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음식은 계급, 민족 집단, 사회적 소속 집단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먹는다는 것은 사회적 행동인 만큼 음식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즉, 음식은 사회적 의사소통 기구로써 언어 다음의 지위를 차지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음식은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음식이 전달하는 주된 메시지는 언제 어디서나 결속감이다. 다른 하나는 타인 또는 타 집단과의 분리이다. 즉 음식은 사회적 계급 또는 집단 정체성(ethnicity) 등을 표지하고, 음식을 나눔은 곧 가족, 친구관계, 친목관계, 동일 종교 집단과 다른 모든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집단 등을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집단은 음식을 타 집단과 차별화 또는 분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어떤 집단은 그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음식을 이용하기도 한다.’<sup>80)</sup>

앤더슨의 논리를 따르면 말고기는 양사포로 대표되는 양반 계층이 자신들과 제주 토착민들을 차별화하고 분리하는 도구로서 이용한 ‘금기’ 음식이다. 하여 그는 소설로 데려오려던 개로역 한집이 말발굽에 고인 물을 먹자 ‘부정한 년’이라 하며 냇가에 버리고 가버린 것이다. 결국 말고기는 양반 계층에 의해 ‘부정된 음식’으로 말고기 식용 여부가 사회적 신분 표식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분이 높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특정 음식, 그것도 토속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 신분을 차별화하는 것을 넘어, 일종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특정생산물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많은 다른 생산품에 대해서는 통렬히 비난하는데<sup>81)</sup> 이런 맥락에서 말고기는 양반들에 의해 금기식품으로 명명되고 통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말고기가 왜 특히 제삿날이나 명절에 부정하다고 하는지가 해명이 된다.

그렇다면 말고기를 부정하게 여긴 제주의 양반들은 누구이며 왜 그들은 말을 부정하다고 하여 먹거리로서 통제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제주의 양반이란 누구인가. 제주에서는 본래 의미의 사족층 형성은 극히 미미했다.<sup>82)</sup> 따라서 지방관이나 토호들,<sup>83)</sup> 향청의 아전, 그리고 제주로 유배 온 양반들이 제주의 양반에 해당할 것이다. 이 가운데 ‘말고기의 부정’관념 생성과 관련 있는 이들은 ‘말 진상’을 담당했던 지방관과 사목장을 소유한 토호들,<sup>84)</sup> 그리고 향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85)</sup> 또 말을 농업이나

80) E. N. Anderson, Ibid, pp.124~128.

81) 캐틀 N 코니한, 김정희 옮김, 2005, 『음식과 몸의 인류학』, 갈무리, 29쪽.

82) 이영권(2005,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172쪽)에 의하면 제주에 토착양반이 적은 것은 제주가 지극히 변방의 섬이며 중앙 정계로 진출한 사람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83) 토호들이 백성들과 대립적 위치에 있음은 아래 기사로 알 수 있다. 아래는 칠방 김위민이 계한 제주의 첫 번째 폐단으로 토호들이 양민을 사적으로 부린 내용이다. “신이 제주에 도입했을 때 고소하는 자가 구름 풀리듯 하였는데, 모두 토호(土豪)들의 불법적으로 양민을 점유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물으면 모두 말하기를, ‘이 지방이 멀리 바다 밖에 있어서 수령의 기강이 헤아리고, 토호들이 방자한 행동으로 제 마음대로 양민을 점유하여 봉족(奉足)이라 일컫고는 부리기를 노예와 같이 하므로, 양민의 아들로서 나이가 겨우 8, 9세만 되면 벌써 점유를 당하여 아버지로서 자식이라 할 수가 없게 되고, 비록 관청에 호소할들 권세 있는 부호의 농간대로 안 되는 일이 없으니, 원통하고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겠습니까.’(하략)(『세종실록』 권36, 세종 9년(1427) 6월 10일 기사).

84) 대표적인 예로 김만일(1550~1632년)을 들 수 있겠다. 그는 1600년과 1620년에 각각 전마 500필을 국가에 헌납하여 헌마공신이라 인정받았으며 그의 아들 들은 대대로 감목관을 지내도록 허가받았다(김만일, 1996, 『한라산의 인문지리』,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도서출판 각, 218쪽 참조).

85) 제주도 목장에는 제주 목사 아래에 감목관이 셋 있었다. 감목관은 소관 목장의 마감과 군두, 군부 및 목자를 지휘, 감독했고 우마수 보고 등을 맡았다. 최하 위층인 목자는 말과 소의 생산을 담당했는데, 노자, 관노, 토착민, 寺社奴 등으로 구성되었고 신분은 양인이었으나 역이 천하여 특수계층으로 불리었다(남도

식용 등 생계에 이용했던 백성들과 달리 토호들이나 지방관은 사냥이나 뇌물 진상을 이유로도 말의 식용을 금하며 말고기 부정 관념 생성에 관여했으리라 생각된다.<sup>86)</sup>

### 다. 말고기 식용 부정 관념의 생성과 제주민의 수용

제주도 사람들에게 말의 농경과 식용의 가치를 가진 것과 달리 중앙 정부에는 군마, 역마, 외교마로서 중시되면서 ‘마정(馬政)은 군국(軍國)의 중한 것’으로서 태종 이래 계속 강조되어 왔다.<sup>87)</sup> 이는 수차례 우마도살 금지책을 공포하고 제주도를 비롯 강화도, 경기도, 전라도 등에도 마목장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 목자에게 말 진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sup>88)</sup> 말도적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sup>89)</sup> 등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말은 사대부들에게 하사되거나<sup>90)</sup> 뇌물로 쓰이면서<sup>91)</sup> 양반 계급에 일종의 희소가치를 가진 귀한 것으로서 인식되었는데 이것은 제주에 목사로 온 이들이 민가의 말을 빼앗아 뇌물로 진상하거나 자기 소유로 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 사실이 뒷받침한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말고기 부정 관념 생성과 관련된다.

먼저 제주에 설치된 마목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국내 최대 말 생산지로 인정받으면서 세종 11년(1429) 제주 출신 고득종의 건의에 따라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지역에 해안지역의 촌락과 경작지와의 경계를 둘을 겹으로 쌓는 하잣을 쌓았고 그 후 한라산 산림지대로 말들이 들어가 잃어버리거나 겨울철에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잣을 쌓아 제주목에 1-6소장, 대정현 7-8소장, 정의현 9-10소장(목장)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마목장의 설치는 국가에서 말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 중산간을 둘러싼 광대한 마목장의 영토는 얼마나 많은 제주 사람들이 마목장의 운영 및 말 진상에 따라 고통을 겪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영, 1996,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381-383쪽 참조.

86) 아래는 성종 21년 제주 견도관 김물(金勿)이 점마를 위해 제주에 가서 수령 및 군관들이 민가의 말을 강제로 점유하는 것을 보고한 내용이다. 말을 생계에 이용했던 백성들과 달리 수령이나 군관들은 사냥이나 놀이, 뇌물로 말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역시 말고기를 식용한 토착민들에게 말고기 부정관념을 유포했을 것이다. “신이 막심(郭驛)과 점마(點馬)로 인하여 제주도에 갔었는데, 하루는 함께 대정현으로 가다가 길에서 정의(旌義)에 사는 부로(父老)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현감이 진상하는 명주와 고치라고 핑계하면서 무제한으로 거두어들이고, 또 둔전이라고 핑계하면서 한 말[斗], 혹은 두 세 말의 종자를 나누어 주고 백성에게 독촉하여 농사짓게 하여 거두어들이기 매우 가혹합니다. 또 백성에게 숫말이 있으면 주현(州縣)에서 즉시 빼앗으며, 수령의 자제나 군관들이 사냥을 나갈 적에는 모두 백성의 말을 빼앗아 타고서 온 종일 물고 다니니, 지쳐서 죽는 말이 많으므로, 숫말을 낳는 집이 있으면 안에 죽여 버리고 기르지를 않습니다. 또 백성 중에서 나라에 말을 바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이 그것을 가로막고 가져와 바치지 못하게 하고서는, 진상한다고 핑계대고 사실은 자기가 점유하여 사물(私物)을 만듭니다’(『성종실록』 권247, 성종 21년(1490) 11월 5일 기사 중).

87)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1412) 2월 6일 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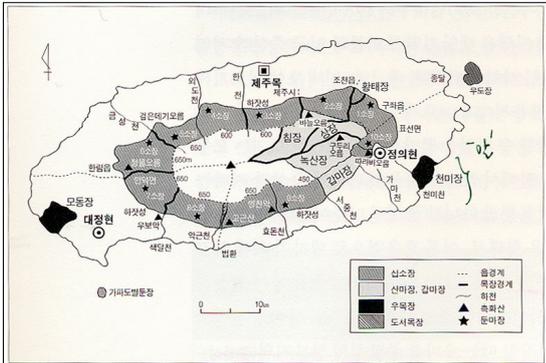
88) 『성종실록』 권2, 성종 1년(1470) 1월 4일 기사에는 검감목관이 점감하는 일에 태만하여 많은 망실을 초래하여 추국(推鞠), 파출(罷黜)시켰으며 숙종 때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1694) 7월 17일)에는 제주에서 공상(貢上)한 말이 좋지 않다 하여 목사를 엄중하게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다.

89) 『세종실록』 권67, 세종 17년(1435) 1월 22일 기사. 제주의 우마도적을 평안도로 이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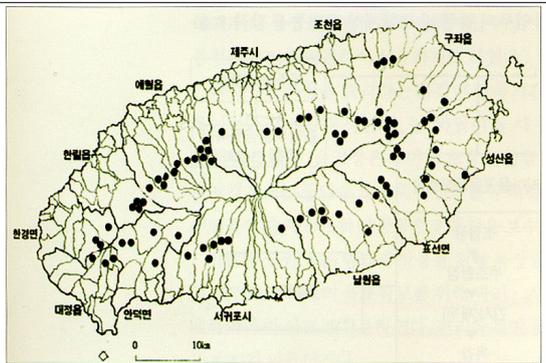
90) 『태종실록』 권2, 태종 1년(1401) 7월 4일 기사에 따르면 태종은 제주에서 진상한 말 2백 70필을 신하들에게 1필씩 내려주었다.

91) 제주 사람 고득종은 태종에게 말을 바쳐 미두를 하사 받았고(『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1413) 11월 24일 기사), 또 세종 때에는 제주에서 좋은 말을 가지고 와서 권귀들과 교제를 맺고 예빈관원을 제수받았다(『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1425) 11월 23일).

<조선 후기 목마장과 일제강점기 목마장>



(그림 4-1) 조선 후기 제주도 심소장과산마장의 분포  
 (자료 : 宋成大 · 康萬益, 2001, 『朝鮮時代 濟州島 官營牧場의 範圍와 景觀』,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통권15호), p.153.)



(그림 4-2) 마을 공동목장의 지역적 분포  
 (자료 : 강민익, 2004, 『일제강점기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 『전국향토문화공모전수상집』, p.29.)



(耽羅巡歷圖중의 貢馬封進圖) 1702년/조선

<그림 3> 탐라순력도 중 공마봉진, 감목관들이 말점열과 진상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사실 마목장의 운영과 공마봉진 등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그에 따른 폐단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덕지에 의하면 말은 관에 신고되어 마적(馬籍)에 오름으로써 통제를 받았고 제주마 사육에 종사하는 마감, 군두, 군부, 목자가 15필 이상을 잃어버리면 그 책임을 물어 파직했으며 가족은 변방으로 이사시켰고, 5필 이상을 잃으면 하등시키고 변상시키게 했다고 한다. 제주목사는 매년 봄과 가을에 말을 한곳에 몰아 점열하는데 진헌마나 어승마로 공마할 말이 있으면 비록 민간이 기르고 있는 말이라도 관가에서 사육하다가 공마에 충원하였다.<sup>92)</sup> 제주목사를 비롯한 감목관 이하 관리들이 진상마 점검 및 마정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원진 목사가 숙종 28년(1702년) 제주의 풍속, 지리 등을 그리게 한 ‘탐라순력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탐라순력도에는 제주 목장 10소장 점검 외 우도점마, 어승마 선발 및 점검

등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말이 진상 외에 교통, 군사, 외교상의 교역, 말가죽, 말갈기등 일용품으로써 이용되면서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급을 담당할 지방관들은 이를 해결하는데 부심했을 것이다.

한편 제주도민은 말사육을 주된 생업으로 하여 처음에는 특산품과 세금을 말로 바치게 되었는데, 말

92) 장덕지, 2007, 『제주마이야기』, 제주문화, 221쪽.

한 마리의 값이 노비 매매 가격의 세 배 이상으로 비쌌던 만큼, 도민 가운데는 가중된 부담을 견디지 못해 말도적이 되었으며, 가혹한 공납과 죽은 말의 배상, 관원의 수탈 등이 계속되어 생활이 어려웠던 목자들은 그 부담이 친척에게로 돌아가 결국 목마장의 말을 도살하거나 부정으로 매각하여 사리를 취하기도 했다.<sup>93)</sup>

다음은 실록의 기사에서 발췌한 것으로 감목관에게 가해진 압력, 감목관이나 수령들이 민가의 말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하며 제주도민을 괴롭힌 예, 우마도적이 되어 강제로 평안도로 이주된 제주민들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1) 숙종 1년(1675) 10월 28일

유명현 등이 소두산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제주(濟州)에 명마(名馬)와 미피(美皮)·관립(冠笠)·어복(魚鰓)·감귤(柑橘) 등 물품이 많으나, 소두산이 일찍이 시배(時輩)에게 선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고 친한 사람을 써서 뇌물을 받으려고 한 것이었다.

(2) 숙종 3년(1677) 7월 13일

제주 목사(濟州牧使) 윤창형(尹昌亨)이 정해진 공상(貢上) 이외에 따로 좋은 말 10필을 바쳤다.

(3) 연산군 12년(1506) 8월 14일

봉진에 불성실한 죄로 제주 목사 육한에게 장죄를 가하게 하다.

(4) 영조 9년(1733) 8월 30일

사헌부에서 이뢰기를, “탐라(耽羅)의 금물(禁物)은 마축(馬畜)에 불과합니다. 제주(濟州)의 전(前) 목사(牧使) 이수신(李守身)은 마필(馬匹)을 많이 싣고 온 것이 낭자하여 가릴 수가 없는데도 감률(勘律)이 너무 가벼워서 삭직(削職)에 그쳤습니다. 청컨대 연한을 정하여 금고(禁錮)하소서.” 하니, 윤택하였다.

(5) 세조 3년(1457) 4월 9일

처음에 제주 경차관(濟州敬差官) 김자행(金自行)이 치계(馳啓)하기를, “전 제주 목사(濟州牧使) 최수평(崔守平)이 부민(部民) 김원금(金元金)·김상로(金尙老)·장명몽(張明蒙)·김대괴(金大塊) 등의 말[馬]을 사들였으며, 또 부민(部民) 송계무(宋繼武)의 말을 처음에는 진상(進上)하는 말로써 낙인(烙印)을 했는데 마침내 그 말을 가지고 사사로이 바꾸었으니, 청컨대 이를 국문(鞫問)하소서.” 하였다.

93) 장덕지, 2007, 앞의 책 222쪽.

(6) 숙종 5년(1679) 9월 12일

윤창형(尹昌亨)이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되어 탐욕을 부려 법을 지키지 않고, 또 남의 좋은 말 80여 필을 위협해 사들여서 더러는 제가 갖고 더러는 당로자(當路者)에게 뇌물로 바쳤는데, 최관(崔寬)이 그 후임이 되어와서 이내 그 일을 들추어 위에 알렸다.

(7) 중종 2년(1507) 5월 25일

전 제주 목사 육한(陸閑)은 제주에 있을 때 불법한 일을 많이 했고, 또 준마(駿馬)를 많이 내다 각역(驛)에 팔았으니, 잡아다 추고하시기 바랍니다.

(8) 성종 8년(1490) 11월 5일

제주 검토관 김물이 말하길 “신이 곽심(郭諶)과 점마(點馬)로 인하여 제주도(濟州島)에 갔었는데, 하루는 함께 대정현(大靜縣)으로 가다가 길에서 정의(旌義)에 사는 부로(父老)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현감(縣監)이 (중략) 또 백성에게 숫말이 있으면 주현(州縣)에서 즉시 빼앗으며, 수령(守令)의 자제(子弟)나 군관(軍官)들이 사냥을 나갈 적에는 모두 백성의 말을 빼앗아 타고서 온 종일 몰고 다니니, 지쳐서 죽는 말이 많으므로, 숫말을 낳는 집이 있으면 아예 죽여 버리고 기르지를 않습니다. 또 백성 중에서 나라에 말을 바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이 그것을 가로막고 가져와 바치지 못하게 하고서는, 진상(進上)한다고 핑계대고 사실은 자기가 점유(占有)하여 사물(私物)을 만듭니다.’

(9) 세종 17년(1435) 1월 3일

임금이 “제주의 소나 말도적들을 옮겨 배치할 때에, 그 경과하는 각 고을에 지령하여 의복과 식량을 넉넉하게 주어 기한(飢寒)이 없도록 하고, 부녀자와 아이들도 얼고 굶주리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10) 세종 26년(1444) 7월 17일

“제주(濟州)의 마소 도둑으로서 진범인(眞犯人)은 이미 일찍이 내린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육지에 나오게 한 뒤에 평안도에 입거(入居)시킴은 물론 범죄의 실정을 아는 이웃 사람에게도 모두 다 동일하게 과죄(科罪)하여 전가(全家)를 평안도에 입거시키게 되어 형벌의 무겁고 가벼움이 마땅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는 범죄의 실정을 아는 이웃 사람에게에는 형전(刑典)의 ‘정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죄’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범과 구분하여서 과죄하도록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실록의 기사를 토대로 연대를 고려하지 않고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 목사에게서는 명마 등의 뇌물을 받으려는 압력이 가해졌으며(①), 제주 목사는 정해진 공상(貢上) 외에도 따로 좋은 말을

바치곤 했다(②). 물론 봉진(奉進)에 불성실하게 되면 벌을 받았다(③). 제주목시는 임기를 마치고 되돌아갈 때 도 사적으로 마필을 많이 취하였으며(④) 불법적으로 민가의 말을 사들여 진상마와 바꾸거나(⑤) 제주민을 위협하여 말을 사들인 후 자기가 갖거나 뇌물로 바쳤다(⑥). 또한 준마를 사들여 역(驛)에 팔기도 했다(⑦)<sup>94)</sup> 한편 수령이나 군관들은 백성의 말을 빼앗아 사냥이나 놀이에 썼고 사유(私有)화했다(⑧). 제주 사람들은 이래저래 말을 빼앗기고 결국 우마도적이 되었는데, 국가의 정책에 따라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평안도로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다(⑨). 처음 몇 년간은 이웃에 누군가 말도적질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까지 모두 강제 이전되었다(⑩). 즉 ‘조정에 말을 진상함으로써 생기는 각종 폐단, 즉 목사들에게 가해진 압력이나 탐욕한 목사나 수령들의 민가의 말 갈취 및 말 세공은 제주민을 어쩔 수 없이 말도적으로 몰고 갔다고 할 수 있다.

아래 기사는 우마를 도살해 생활을 도모한 토착민들과 이들을 관리해야 했던 지방관이나 조관들의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전략) 내가 듣기에는 말도독이 거의 천 명에 달한다 하나,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주의 사람들이 그 토풍(土風)에 젖어서 자기의 우마를 잡아 제사하고 그 고기를 먹는 자까지도 모두 색출에 걸렸는데, 이것이 사실인가.”하니, (중략) 정연은 아뢰기를, “따로 조관을 보낸다면 도리어 소요스런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신이 당초에 듣기로는 제주가 지역이 좁고 인민이 많은 관계로 생계가 궁박하여, 불순분자들이 산간에 군집해서 우마를 도살하여 생활을 도모하고 있고, 토호(土豪)들이 백성을 많이 점유하여 부리고 있다 하옵는데, (후략)<sup>95)</sup>”

위 기사에 따르면 제주에 우마도적이 많았으며, 이들이 산간에 운집해 ‘토풍’에 젖어 우마를 도살하여 생활을 도모하고 토호들은 백성들을 많이 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마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토풍’이라 한 것이 주목된다. 이로 보아 제주사람들에게는 말고기를 먹는 것이 원래 풍속이었고, 말고기가 부정하다는 관념은 없었다. 반면 말을 점검하여 진상하거나 사냥이나 뇌물 등으로 말을 이용한 지방관 및 사목장을 소유한 토호들은 말을 도살하는 제주도민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다음 기사는 세종조에 예빈관관에 이어 일본 통신사에까지 오른 제주 사람 고득종이 마소도적 처벌에 대해 올린 상소인데, 토호들의 생각을 잘 대변한다. 고득종은 마소도독을 평안도 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 ‘고향 사람’의 입장에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소도독이 된 점을 감안해 초범자는 용서하고 재범자만 육지로 내보낼 것을 제안했다.

“신의 고향인 제주는 예전 을묘년에 차현유(車玄有)와 내성(內城)의 무리들이 마적(馬賊)이 되었는데, (중략) 토관들이 나라의 위령(威靈)을 힘입어 능히 그 무리들을 평정시켰습니다. 대저 본주는 산림이 울밀하고 깊숙한 굴혈이

94) 이것은 말이 내륙에서는 사대부의 사치품으로서 희소가치가 있었고, 말을 팔아 부를 축적하는 것 또한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95) 『세종실록』 권67, 세종 17년(1435) 3월 12일 기사 참조.

심히 많아서, 도둑질하는 자들이 모이는 소굴로 되어, 매년 몰래 숨어서 공사(公私)의 마소를 도둑하여 죽이니, 이같이 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장차 그 폐해를 구제할 길이 어렵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 도둑들을 장차 육지로 모두 내보내어 평안도 땅으로 옮기려 하옵시니, 이는 신의 본래의 소원입니다마는, 다만 이제 고향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은 마소의 도둑이 더욱 많다.’고 하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살피시어, 두 번 도살한 죄를 범한 자 외에는 이제 흉년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한 자는 아직 그대로 두고 배반하는 마음을 안정시켜서 예전에 가졌던 마음을 고치게 하고, 이후로 도둑질하는 자는 비록 초범(初犯)일지라도 곧 육지로 내보내어 먼 도에 두게 하면, 마적이 스스로 끊어지고 언짢은 풍속이 새로워질까 하옵니다.”<sup>96)</sup>

그러나 실록의 기사를 참고하면, 우마도살금지책이나 마소도적의 평안도 강제 이전 등 물리적 방법에도 말 도살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관이나 양반들, 그리고 말을 많이 소유한 토호들은 말도 살이 끊이지 않자 물리적으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구안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고기는 부정하다’는 관념의 생성과 유포라고 하겠다. 지방관이나 토호들은 말도적과 말 식용 풍속을 억제하는데 의견을 공유했을 것이고, 토호들은 제주 민중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에 의해 말고기 부정 관념이 생성되고 유포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아래의 증언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어떻게 말은 일하는 데 사용하고 개도 집안을 지킨다든가 사냥이라고 핑 잡을 때 쓰고, 그런 것을 마구잡이로 도살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못 먹게 한 거주. 신에게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 말의 일정량을 진상해야 했으니 도살을 금지하고 부정하다고 한 거지. 옛날에는 동네 몇몇 사람이 벼슬하고 학문하는 사람이 극소수라. 그런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때, 그런 방법으로 못 먹게 한 거지. 요즘은 식문화가 발달하니 개의치 않지만<sup>97)</sup>

그러면 제주민들은 왜 말고기 부정 관념을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말도적 재범에게 부과된 ‘강제 이주’라는 정책과 말도적 전과 3범에게 취해진 사형 등 강압적인 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주민들에게 따뜻한 남쪽 섬 고향을 떠나 북쪽 변방 평안도로 끌려 가는 것은 가혹했을 것이다. 말도적이 된 제주민들의 강제 이주 시기가 1435년 1월 중순으로 가름되니 그 신고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말고기 부정 관념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미 제주도에는 ‘돼지고기 부정 관념’이 한 권에 있었으므로, 또 다른 육고기에 대한 부정 관념과 금기의 수용이 낯설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먹어온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 또한 쉽게 포기되는 것은 아닐 터, 따라서 ‘임신 중 말고기는 과일난산’, ‘명절이나 제사에 말고기 먹으면 부정탄다’며 말고기에 대한 부정 관념을 특정 시기에 제한하면서, 알음알음 추렴하며 말고기 식용을 지속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제주도의 말고기 식용 관습은 ‘민속이 한 시대의 지배적 논리에 대응하여 저항적인 양상을 지니고 민간에 정착된’<sup>98)</sup> 예이면서 먹고 싶은 고기를

96) 『세종실록』 권65, 세종 16년(1434) 8월 28일 제주도의 우마도적 처리에 대한 고득종의 상서.

97) 정영평씨 제보(2009. 1.20).

적절히 제한하며 식용해온 제주 민중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4. 맺음말

이 글은 제주도에서 ‘부정 관념’과 함께 식용 관습이 형성된 말고기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고기 식용 문화가 반영된 제주도 신화와 속담, 선달의 건마육 풍습, 조선왕조실록의 말고기 관련 기사 및 『산림경제』 등에 제시된 말고기 요리법과 중독 처방법 등으로 보아 ‘말고기 식용에 대한 부정’ 관념이 애초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륙에서 군마나 역마로서 말의 기능이 중시되면서 마정과 말에 대한 신성 관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말고기 식용이 억제된 것처럼 제주에서는 말 목장 운영과 말 진상에 따른 각종 폐단 및 지배계급의 사치품화로 말고기 식용이 ‘부정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말고기에 대한 이러한 ‘부정 담론’은 특히 말을 진상해야 하는 지방관이나 사목장을 소유한 토호들을 중심으로 공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말도살을 감행하는 가난한 제주사람들이나 목자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이들에 의해 생성되고 유포된 관념이 ‘말고기 부정 관념’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제주 민중들은 지방관에게 말을 빼앗기거나, 말 도적이 되어 강제 이전의 시련을 겪으며 말고기 식용을 통제받으면서도 말고기에 대한 부정 관념을 제사나 명절에 한하며 말고기를 식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제주에서 말고기는 웰빙식품으로서 쇠고기를 대체할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육류<sup>99)</sup>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제주도에는 50개의 말고기 전문식당이 들어섰으며, 관광객과 제주도민에 의한 말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제주대, 국립축산과학원 제주출장소 등을 주축으로 기능성 고품질 말고기와 말고기 요리법, 말 관련 가공품 등이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의 한 켠에 자리잡은 말고기 식용에 대한 부정 관념은 여전히 살아 있다. 먹거리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은 음식문화의 ‘유구한 역사성’ 때문일 것이다. 인식에의 변화 혹은 새로운 전통 창조는 항상 그 연원을 찾아봐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한편, 말고기의 식용과 부정 관념은 육지와 제주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1920, 30년대, 가까이 60년대까지 말고기 식용으로 인한 식중독이나 사망 문제가 기삿거리로 취급된 점<sup>100)</sup>을 볼 때, 근대에 들어 말고기에 대한 또 다른 이유에서의 ‘부정 관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제주마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한 말고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직업이나 거주지, 연령 등에 따른

98) 주영하, 2006, 『식사 기호 민속음식』, 『비교민속학회』 31집, 비교민속학회, 19쪽.

99) 오영주, 2006, 『제주도 말고기 음식 문화와 영양 기능성』, 『감귤원예지』 9-10, 제주 감귤 농협, 121-131쪽 참조.

100) 1927년 『동아일보』 기사(5. 7) 죽은 말고기 판매한 사람 구류 이십일에 처함./ 1953년 『동아일보』 기사(8.14) 인민군들이 귀환포로들에게 말고기를 먹여 집단 식중독에 걸림/ 1962년 『동아일보』(4.17) 중국 요리점 주인 쇠고기에 말고기 섞어서 판매함. 1962년 『동아일보』(5. 9)기사 말고기국 국 끓여 먹고 둘 죽고 한명 중태에 빠짐.

말고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과 더불어 후속 연구로 미룬다.

KCS I

##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산림경제』 권2, 권3(한국역사정보시스템 국역 자료).
- 『사우명행록(師友名行錄)』(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서 자료).
- 『송자대전』 권5 (한국고전번역원).
- 『동아일보』(한국역사정보시스템 연속간행물).
-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 고재환, 2002,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 김지순, 1998, 『제주도 음식』, 대원사.
- 남도영, 1996,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 문화공부부 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형설출판사.
- 송성대, 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 오영주, 2006, 『제주도 말고기 음식 문화와 영양 기능성』, 『감귤원예지 9-10』, 제주감귤농협.
- 유애령, 1999, 『몽고와 고려의 육류 식용에 미친 영향』, 『국사과논총』 제87집, 국사편찬위원회.
- 이영권, 2005,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 장덕지, 2007, 『제주마이야기』, 제주문화.
-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탐라문헌집』, 제주도 교육위원회.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제주도의 식생활』.
-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한라산의 인문지리』, 도서출판 각.
- 주영하, 2006, 『식사, 기호, 민속음식』, 『비교민속학』 31집, 비교민속학회.
- 진성기, 1985, 『남국의 향토음식』, 제주민속연구소
- \_\_\_\_\_, 2002, 『제주도 금기어 연구 사진』, 제주민속연구소, 태화인쇄소
- \_\_\_\_\_, 2005,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진』, 민속원
- 천진기, 1990, 『말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과 태도』, 『동계성병희박사회갑기념 민속학논총』, 형설출판사.
- \_\_\_\_\_, 2006, 『한국 말 민속론』, 한국마사회 박물관.
- 허남춘·주영하·오영주, 2007, 『제주의 음식문화』, 제주특별자치도·국립민속박물관.
- 캐롤 N. 코니한, 김정희 옮김, 2005, 『음식과 몸의 인류학』, 갈무리.
- Dawn E. Bastian and Judy K. Mitchell, 『Hand book of Native American Mythology』, 2004, ABC-CLIO.
- E. N. Anderson, 『Me, Myself, and the Others-Food as Social Marker』, 『Everyone Eats-Understanding Food and Culture』, 2005, New York Univ. Press.
- Frederick J. Simoons, 『Eat Not This Flesh』, 1994, The Univ. of Wisconsin Press.
- Marvin Harris, 『Good to eat』, 1985, Simon and Schuster.

Abstract

## The Jeju Island Tradition of Horsemeat Eating and the Analysis on the Belief of Impurity in Consuming Horsemeat

Min Yoonsuk

Andong National Univ, Department of folklore

Horsemeat restaurants are thriving in *Jeju* Island nowadays and consumption of horsemeat is increasing there as well. These trends highlight the unique *Jeju* dietary tradi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mainland. However, there is also a peculiar belief that consuming horsemeat is impure ; a belief that has developed along with the culture of horsemeat consumption in the island. Horsemeat was neither used for ancient rituals nor in seasonal festivities. The locals regard the practice as taboo before an important occasion and therefore refrain from consuming horsemeat at least for a week before the occasion.

As one takes a closer look at historical evidence however, such belief, quite clearly, had been manufactured. The tradition of horsemeat consumption is clearly evidenced in several *Jeju* Island myths and proverbs including the *Segyeongbonpuli*, *Dangbonpuli* of *Guja-myeon*, which have all been transmitted until today. Records of ancient recipes from ancient literatures such as the Joseon Dynasty Annals, *Sanrimgyeongje*, and *Donguibogam* also make it clear that horsemeat consumption was practiced even in the mainland. Such recipes include horsemeat jerky, horsemeat broth, and an antidote for horsemeat poisoning. Also, there was an old *Jeju* tradition of making horsemeat jerky from a mare in the last month of the year, which makes it clear that the notion of impurity existed originally.

It is quite clear that horsemeat consumption was regarded as impure and was suppressed in *Jeju* Island due to the operation of horse ranches and abuse in royal offering of horses. Similarly, eating horsemeat in the mainland was discouraged because of the regarded sanctity of horses and the administration of horse usage as they became important for the purposes of war and post.

Ancient literature from the time of King *Sejong* during the Joseon Dynasty reveals that 1,000 or more horse thieves were exiled. This legal act clearly shows the conflict and contradiction between the national policy on horse usage and the tradition of horsemeat consumption in *Jeju*. Since it was impossible to wipe out horsemeat consumption completely through policies that

prohibited the slaughtering of horses and cows and exiled horse and cow thieves, it seemed that it was the local officials who intentionally created the belief of impurity to suppress horsemeat consumption since they had to make a royal offering of horses and patronize the owners of horse ranches. They had to control the locals who had, for generations, traditionally slaughtered horses for their food and livelihood in order to guarantee the supply of horses to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there was already a well established belief of impurity on another type of meat-pork, they thought that it was probably easier to penetrate the consciousness of the locals with such a belief rather than physical control or persuasive arguments.

The main reason why horsemeat is still regarded as impure for seasonal festivities, ancient rituals and weddings is because it had not been recognized by local officials and gentries, the class in charge of official matters. However, locals have shied away from horsemeat because they have wisely developed a close interest in horses as an important support to enhance their livelihood. They began to use horses in farming, such as Batbalim and horse yoke, building houses and producing horse-based materials. Also, it was quite clear that the belief of impurity was usually reinforced and limited by social censure or control, not from the horsemeat's edibility.

**Keywords** : Horsemeat, belief of impurity, horsemeat consumption, taboo, social marker

